



강원정보문화진흥원 강원VR·AR제작거점센터 운영

강원VR·AR제작거점센터가 강원도 춘천에 문을 연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정보통신산업진흥원, 강원도, 춘천시 지원하고,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운영하는 강원VR·AR제작거점센터는 강원도 내 VR·AR 기업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공간, 장비, 교육, 마케팅 등 전 과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.

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정부 부처 산하 기관들과 협력과 상생을 기반으로 강원도 내 시·군과 기업, 대학들과 선순환의 생태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. 또 강원VR·AR 제작거점센터가 온택트 시대의 VR·AR콘텐츠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진흥원은 2002년 '강원정보영상진흥원'으로 출범해 2007년 지금의 이름으로 개명했다. 그동안 지역 기업과 함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, 애니메이션박물관과 토이로봇관을 운영하며 누적 관람객 450만명을 달성하는 등 강원도의 문화 산업을 이끌고 있다.

현재 스마트토이클러스터, SW융합클러스터, 강원콘텐츠코리아랩, 강원음악창작소, 강원VR·AR제작거점센터 등 신규 국비사업 유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.

김홍성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은 "진흥원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더 열정적인 자세로 지역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 ▼



GVAR 강원VR·AR제작거점센터

온택트 시대의 VR·AR콘텐츠
강원VR·AR제작거점센터가
그 중심이 되겠습니다.